

한국 번역사 정리를 위한 시론(試論)

유명우

(호남대 교수, 한국번역학회 회장)

1. 들어가는 말

우리 학계에서 번역(翻譯)이라는 말은 친숙한 용어(用語)인데 비해 번역학(翻譯學·Translation Studies)이라면 아직 생소(生疎)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논문의 제목으로서 한국번역사(韓國翻譯史·History of Korean Translation)라는 표현은 더욱 생경(生硬)하여 다소 개념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여지도 있을 것 같다. 한국사에서 '번역사'라고 한다면 무엇을 호칭하는 것이며 '번역사의 정리'라면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본 논문은 기존의 학문영역에 대한 연구가 아닐뿐더러 제목(題目)부터가 약간의 도전적(挑戰的)인 시도(試圖)이기 때문에 몇 가지 시비(是非)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이 작업을 시작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여러 분야에서 크게 부양(浮揚)되고 있는 터에 유독 번역 분야에서는 역사도 없는 나라처럼 비치고 있거니와 우리 나라의 번역의 역사를 사실대로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일은 우리 학계가 해야 할 책무(責務)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고는 우선 몇 가지 부담(負擔)을 안고 들어간다. 먼저 번

역사의 정리 이전(以前)에 번역사의 연구는 무엇에 기여(寄與)하며 어떤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할뿐더러 번역사의 연구(研究)와 기술(記述)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밝히는 일이다. 짧은 논문으로 「한국 번역사」라는 방대한 내용을 처리한다는 것은 적당치 않음으로 한국 번역사가 지니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시대별로 분석 기술함으로서 앞으로 우리 학계에 일어날 한국번역사 논의(論議)에 기폭제(起爆劑) 같은 역할을 자임(自任)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번역교육(翻譯教育)의 열개로서의 번역사(翻譯史)

역사(History)는 학문과 교육을 위해서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서 독자적인 역사를 기술(記述)하고 있으며 이는 그 분야 학문연구의 집적(集積)된 성과로서 후속연구(後續研究)의 기초가 되고 길잡이가 된다. 번역 분야도 이러한 관점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번역을 학문적으로 접근하여 연구하고 이를 교육에 활용하려면 번역학과 함께 번역사가 기술(記述)되어 있어야 한다.

번역교육과 관련해서 몇 나라의 사례를 들어본다면 영어권 국민과 불어권 국민이 공존 공생해야하는 캐나다나 번역을 국가 경영의 중요한 수단으로 채택하고 이미 1970년대부터 현대적인 번역교육을 시작하면서 (Université de Montreal, University of Ottawa, School of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번역사를 정식 교과과정으로 채택하고 있다. 번역사를 별도로 강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번역이론 강의에 덧붙여서 번역사를 강의하고 있다.

이웃 중국은 전통적으로 번역을 외국어 교육의 일환(一環)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가 외국어 교육에서 4대 기능(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을 연마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반하여 중국의 경우에는 번역하기(Translating)를 제5기능으로 설정하여 대학 외국어 교육의 완성과정으로 교육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통역과 번역은 개인적으로는 직업능력이며 국가적으로는 중요한 문화 교류의 수단이다. 중국인들은 전통적으로 타문화가 중국에 들어올 경우 중국화(中國化)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외래어는 반드시 번역해서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외국어 교육의 완성은 번역과

번역학 그리고 번역사를 가르치는데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중국의 어문체계를 보호하고 언어를 통일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일본의 경우 19세기에 시작된 명치유신(明治維新)의 캐치 프레이즈의 하나가 서구화(西歐化)였다면 그 방법론은 번역이었다(Masao & Shuich 1998:49) 그들은 정부 공식 기구로서 번역청(翻譯廳)을 설치하고 서구의 과학사(科學史)와 법제사(法制史) 등 많은 번역을 수행하여 중국 일변도였던 문화수입창구(文化輸入窗口)를 서구(西歐)로 확대한 것이다. 현재 일본은 번역(翻譯)은 상품(商品)이라는 관점에서 번역을 산업화(產業化)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다. 많은 번역회사가 번역을 계약에 따라 생산하고 배달하고 AS까지 책임지는 일을 수행한다. 따라서 번역교육은 직업교육으로 정착되어 직업교육기관인 사설학원이나 전문대학 같은 곳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부수된 교재의 개발과 이론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위의 실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언어문화의 실상은 나라나 지역마다 다르고 독특하기 때문에 번역과 번역교육 역시 국가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번역사의 기술 역시 다양성과 특수성을 수용(受容)할 수밖에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과 같이 일찍이 단일 언어로 통일된 나라는 국내적으로 번역의 필요성이 다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호주나 인도와 같은 다인종 다언어 다문화가 공존해야 하는 지역이나 국가에서는 번역의 문제는 가히 생존의 문제와 같이 절박하다. 그러나 이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교통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모든 국가나 지역이 다언어와 다인종의 혼합사회로 탈바꿈하고 있으므로 번역의 긴요성(緊要性)은 날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번역교육의 필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趨勢)이다. 번역교육에서 번역사가 빠지면 모든 번역이론과 번역의 과정이 헝클어져서 마치 뿌리 없는 나무를 심는 일과 같다. 번역사는 번역교육의 기본 열개로서 번역학을 정리하는 뼈대가 되어야 한다.

3. 번역사 기술(記述)의 관점(觀點)

다른 일반 역사에서나 마찬가지로 번역사를 기술함에 있어서도 ‘번역을 보

는 관점(觀點)’에 따라 번역사는 달리 기술(記述) 될 수 있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과 이를 선택(選擇), 해석(解釋), 기술(記述)하는 역사가들과의 관계는 이미 많은 논란(論難)의 대상이 된 과제(課題)이다. ‘역사는 역사에 대한 역사가의 견해와 무관(無關)하게 기술되지 않는다’는 주장(Carr 1961: 23)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역사는 있었던 사실(事實)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관점에 따라 기록하는 것이며 어떤 의미로 보면 ‘역사는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주장까지로 비약(飛躍)한다. 이러한 역사학의 일반논리가 번역사의 기술에도 해당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번역사의 연구에서 번역사와 번역사가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필연적(必然的)인 과정(過程)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번역의 경우 그 정체성(Identity)에 대한 논의가 언제나 진행(進行)되고 있는 상황임으로 번역사의 정체성 역시 항상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번역에 대한 기본 개념은 ‘어떤 한 언어로 쓰여진 텍스트(ST)를 필요에 따라 다른 언어로(TT)로 옮기는 일’이라는 한정(限定)된 생각에서 벗어나 아날로그(Analogue) 정보와 디지털(Digital) 정보를 호환(互換)시켜주는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의 기능을 번역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문학작품의 영화화(映畵化)와 같이 서로 다른 기호로의 변환(transfer)까지를 번역의 영역(領域)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번역활동은 말과 문자를 가지고 하는 작업에서 기호(記號) 변환의 작업으로 확대되고 나아가 정보교환과 정보배분의 과정에서도 번역활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번역학의 연구는 그 만큼 넓은 영역을 감당해야 하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게 된다.¹⁾ 또한 오늘날의 번역학은 언제나 ‘번역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과 무관

1) 번역의 정의는 비슷한 점이 있으면서도 견해에 따라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다.

Catford defines translation as “the replacement of textual material in one language (SL) by equivalent textual material in another language (TL)” (1965:20). Jakobson sees translation in semiotic terms as “an interpretation of verbal signs by means of some other language” (1959/1966:233;). Lawendowsky defines translation as “the transfer of ‘meaning’ from one set of language signs to another set of language signs” (1978:267). Nida and Taber’s definition of translation : “translating consists in reproducing in the receptor language the closest natural equivalent of the source-language message, first in terms of meaning and secondly in terms of style” (1969/1982:12) Toury’s definition: “a translation is taken to be any target-language

(無關)할 수 없으며 따라서 번역의 정체성과 기본개념은 모든 번역이론 전개(展開)의 전제(前提)가 된다.

번역사 기술의 방법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느냐 아니면 타 학문분야에서 빌려오느냐 하는 논의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과학사와 같은 타 학문분야의 역사기술의 방법론을 빌려오는 것이 번역사 기술의 방법론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D’huilst 1991, translated)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번역사의 기술은 하나의 새로운 학문을 확립하고자 하는 필요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번역사는 번역학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론임으로 번역학과 번역사는 양자가 연대해서 나아 가야할 것’(Lambert 1993b)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이들 주장은 다 같이 번역사가 언어발달사나 언어학사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체의 정체성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 주장들임에 틀림없다.

일반 역사연구에 있어서 ‘역사는 확고한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는 19세기적인 믿음은 무너지고 ‘역사는 역사적 사실과 그것을 추적 기록하는 역사가의 활동이 합쳐진 것’이라는 논리가 힘을 얻으면서 역사를 기술하는 사관(史觀)의 문제가 역사연구의 초점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면 번역사 연구에서도 번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번역사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역사의 객관성 문제’는 번역사의 기술에도 논의되어야 할 필연적 과제가 된다. 이미 ‘역사는 역사가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재구성하는가에 달려있다’(‘the re-enactment of past thought in the historian’s own mind’)(Collingwood 1962)는 역사기술의 주관주의를 강조하는

utterance which is presented or regarded as such within the target culture, on whatever grounds” (1985:20). Vermeer defines translation as “‘information’ about a source text in another language” (1982:97). 이러한 견해는 점차적으로 번역문이 원문과의 관련에서 떠나 번역문 문화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가 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Nord는 “translation is the production of a functional target text maintaining a relationship with a given source text that is specified according to the intended or demanded function of the target text (translation skopos)” (Nord1991a:28). Sager의 정의는 종래의 번역의 정의와는 파격적으로 다르다. 그는 번역을 ‘정보기술산업활동’의 일환으로 확대시켜 주고 있다. “translation is an externally motivated industrial activity, supported by information technology, which is diversified in response to the particular needs of this form of communication” (1994:293).

주장이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 '역사는 역사가의 입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해서 문자로 구성된 인공적 산물'(White 1973)이라는 거의 극단적인 주장도 있다. '역사 기술(記述)에 있어서 객관성(客觀性)의 문제(objectivity question)는 아직 미해결(未解決)의 문제'(Novick 1988, translated)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번역사 연구에서 번역을 무엇으로 보며 번역사를 어떤 태도로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보다 깊이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겨두고자 하는 주장도 있다. 다시 말해서 번역사의 연구에서 번역사의 기술 자체보다 보다 '번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새로운 과제에 부딪친 것이다.

4. 기술(既述)된 번역사(翻譯史)

번역학계에는 아직 객관성 있는 번역사 기술(記述)의 모델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번역사 기술의 필요성은 번역이론 개발 차원에서나 번역교육 차원에서 절실하게 제기되어 왔으며 실지 많은 번역사가 이미 기술되어 있다. 서구(西歐)나 일본 중국 등에서는 이미 번역사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體系的)이지는 않지만 간헐적(間歇的)으로 이루어져왔다. 비록 번역사란 명칭을 붙이지 않았으나 하더라도 문학이나 언어연구의 일환(一環)으로 번역가들과 번역현상에 대한 저술(著述)을 여러 사례(事例)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존슨(Samuel Johnson)은 「여유 있는 사람들」 *The Idler*(1759)에서 '고대회랍에서 17세기 영국까지 번역의 역사를 추적하여 기록하면서 의미 중심번역(non-literal translation)이 축어적번역(literal translation)보다 성공적(成功的)이었음을 피력하고 있다(Johnson 1963:211-17). 캐리(Edmond Cary)의 「현대사회에서의 번역」 *La traduction dans le monde moderne*(1956), 사보리(Theodore Savory)의 「번역의 기술」 *The Art of Translation*(1957) 등 이러한 서적은 번역의 원리를 포함해서 과거의 번역의 역사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스타이너(George Steiner)의 「바벨탑 그 후」 *After Babel*(1975)은 이미 고전이 되다시피 널리 알려져있고 켈리(Louis Kelly)의 「진정한 통역사」 *The True Interpreter*(1979)나 바스넷(Susan Bassnett)의 「번역학」 *Translation Studies*(1980) 등은 번역의 역사를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번역사 기술의 어떤 모

델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김병철(1998)의 「한국현대번역문학사연구」는 20세기에 들어와 한국어로 번역된 외국 문학의 사례를 조사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강신항(2000)의 「韓國의 譯學」은 조선조의 역학 교육에 대해서 제도(制度)와 활동한 인물(人物)을 중심으로 고찰(考察)하고 있다. 또한 정광(1988)의 「司譯院 倭學研究」는 조선조 사역원(司譯院)에서 시행된 각종 역관 선발의 방법을 고찰하고 왜학서(倭學書)의 변천과정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와 저술은 번역사의 관점이나 의도를 가지고 저술되지는 않았으나 엄연히 번역과 번역가에 대한 기록이며 번역사의 자료로나 번역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손색이 없는 저술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의 번역은 한국어와 한문과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 온 것이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한문(漢文) 차자법(借字法) 연구와 같은 고대와 중세의 국어 국문학의 연구는 한문이 한국어의 번역에 개입한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기에 한국 번역학의 기초연구로 볼 수 있다. 이들 연구는 고대의 비문(碑文)이나 금석문(金石文)의 자료를 발굴 해독하고 그 체계성을 찾아내는 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의 한국의 번역의 현주소를 말하는 것이다. 일인(日人)학자인 小倉進平(1940)의 『增訂朝鮮語學史』나 남풍현(1986)의 「차자표기법연구」 등은 훈민정음이 나오기 전에 한국어를 한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들이며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이 한국어의 변천과정을 추적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번역학의 눈으로 보면 이는 어김없는 한국의 번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연구한 것이다. 특히 정광·윤세영의 「사역원 역학서 책판연구」(1998)는 번역사의 자료를 정리한 것이고 이외에도 많은 국학의 저술과 논문이 한국 번역사의 정면이 아닐지라도 측면과 기초를 파헤치는 작업을 해내고 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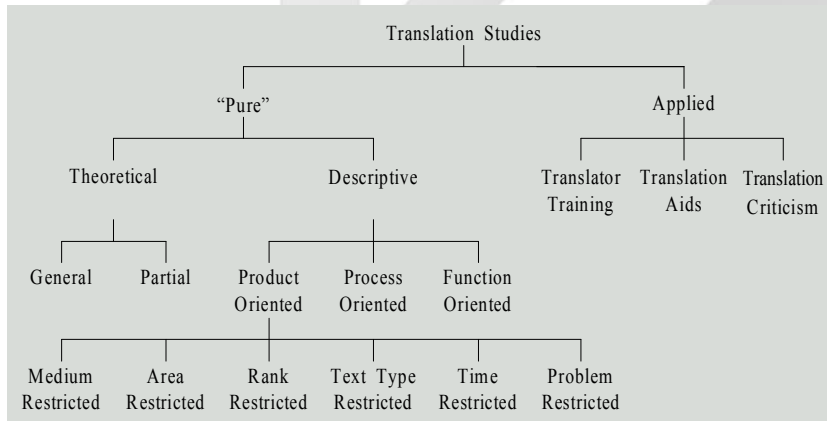
2) 강신항(1973)의 「사성통해연구」 남광우(1966)의 「동국정운식 한자음연구」 안병희(1977) 「중세국어 구결의 연구」 이기문(1963a)의 「국어표기법의 역사적연구」 이승녕(1955)의 「신라시대의 표기법체계에 관한 시론」 등은 번역이라는 용어만 빠져있을 뿐 한국의 번역사의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다.

5. 뫼(Anthony Pym)의 주장과 번역사 연구의 세 방향

우선 현대 번역학의 분류에서 번역사는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가하는 점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번역학(Translation Studies)이란 명칭은 1972년에 행한 홈즈(James S Holmes)의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라는 제목의 강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Holmes’ Map이라고 불리는 번역학 분류표가 만들어 졌다.³⁾ 그러나 홈즈의 분류표는 매우 자세하면서도 뜻밖에도 번역사를 별도의 항목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뫼(Anthony Pym 1998:3)에 따르면 홈즈가 작성한 도표에는 번역사 연구가 기능 중심 연구(Function Oriented Description)와 시대별 연구(Time Restricted Theory)로 갈라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번역사는 순수 이론 연구의 일환으로 다시 제 자리를 찾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뫼의 이러한 주장은 번역사를 번역가들이 번역을 통해서 역사에 끼친 공과를 중심으로 인문학이라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어 번역사를 세 가지 영역으로 하위분류하고 있다.

1) 번역고증학(Translation Archaeology)은 일반 고증학과 마찬가지로 소실되어 가는 자료를 감정 복원하고 이를 고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누가 무

3) Holmes' map of Translation Studies



엇을 어떻게 어디서 언제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그 결과는?('who translated what, how, where, when, for whom and with what effect?')이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해야하는 연구이며 번역사의 연구의 기초를 마련해주는 필수적인 연구라고 주장한다. 'archaeology'라는 말은 원래 고고학(考古學)이라는 뜻으로 특히 번역고증학에서 말하는 것은 고문서(古文書)나 금속문(金屬文) 비문(碑文) 등에 기록된 번역의 증거를 해독하여 번역의 역사적 과정을 더듬어내는 작업을 말한다. 우리 나라의 한문의 '차자표기법' 연구나 광개토태왕의 비문의 해독과 같은 작업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2) 역사비평(Historical Criticism)은 역사적으로 수행된 번역이 문화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가름해보는 작업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니체(F. W. Nietzsche)의 한국어 번역이 한국에 니체 사상을 제대로 소개했는지 또는 셰익스피어(W. Shakespeare) 한국어역이 그의 문학정신과 문학적인 즐거움을 한국의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이다.

3) 해석(Explanation): 앞의 두 가지가 모두 구체적인 사실과 텍스트와 관련되어 있다면 해석 작업은 번역이 끼친 상호 영향과 관련성을 검토하는 것이며 원인을 찾아 그 공과를 들어내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의 결과로 어떤 번역가가 가장 문화발전에 공헌한 주인공으로 부각(浮刻)될 수도 있고 어떤 번역이 어떤 사상을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 시켰는지를 밝혀 낼 수도 있다.

6. 번역사 연구: 현황과 전망

번역은 매우 일반성을 띤 현상 같이 보이나 실지 번역현상은 특정 언어와 관련되어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어느 시대(time), 어느 나라(place)라는 제한이 없으면 번역 현상은 공허한 개념이 된다. 로마의 번역은 라틴어와 아랍어나 그리스어 사이에 일어난 번역현상이며 17세기 영국의 번역은 영어와 불어나 독어사이에 일어난 번역이다. 따라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한국 번역사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발생한 번역현상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보면 번역학과 번역사 연구는 국학(國學) 연구와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

* 지역별 번역사 : 번역사가 지역 단위로 기술되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서구의 학문전통으로 보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추세는 ‘유럽이 국민국가의 전통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역사 기술이 대부분 국가나 문화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Standford 1987:21 translated)는 지적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번역사 역시 일반 역사와 마찬가지로 국가나 종교 언어집단이나 문화집단을 단위로 고찰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들릴(Jean Delisle)이 1987년 캐나다의 번역사를 저술하였고 시몬(Sherry Simon)은 1989년 불어권인 퀘벡 주의 번역문제만을 집중적으로 기술한 책을 출판했다. 카메룬의 번역사(Nama 1990), 쿠바의 번역사(Arencibia 1992) 아일랜드의 번역사(Cronin 1996) 홍콩의 번역사(Translation in Hong Kong: Past, Present and Future Chan Sin-wai, ed. 2001) 등등이 이미 출간되어 있다. 이와 같이 지역별 또는 국가 별로 편찬한 번역사가 있는 동시에 시대별로 구분해서 기술할 수 있다.

* 시대별 번역사: 특히 중세나 르네상스시대의 번역과 번역가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저술(Chavy 1988; Copland 1991)이 있으며 독일 낭만주의 시대의 번역연구(Berman 1984)와 같이 시대와 장소를 연결 지은 연구도 있다.

* 장르별 번역사: 특히 번역은 전통적으로 문학과 종교서적의 번역에 많은 애착과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성서번역의 역사나 셰익스피어 번역의 역사 같은 특수한 장르나 작가를 대상으로 한 번역을 역사적인 시각으로 연구할 수도 있다. 우리의 경우 삼국지(三國志)는 여러 차례 번역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번역사는 나타나 있는 번역 다시 말해서 번역자료사 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번역과 번역의 의미를 탐색해내는 작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령 「삼국지」의 번역이 분명히 우리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데 이를 어떻게 가시적인 표현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가? 번역사에서 다룰 수 있다고 예상되는 일은 우선 ‘역사 속에 들어있는 번역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내어 이를 분석하고 기술하는 일과 시대별 또는 국가별로 번역정책이 문화발전에 끼친 공과를 분석 기술하고 번역이 역사의 흐름과 변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조명하고 기술하는 작업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번역은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꾸어 놓는 작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번역을 통해서 또는 번역의 결과로 이루어

지는 일은 매우 다양하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번역은 문화의 이전(移轉)과 발전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고 언어의 형성과 변천에도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언어정책과 함께 번역은 국가나 종교 그리고 문화 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종교와 이념과 사상을 이동시키고 전파하며 많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에서 번역을 보고 번역이 끼친 영향과 과정을 추적하는 일은 번역사 연구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번역학이 미시적인 작업에 몰두한다면 번역사는 번역이 이룩한 거시적인 결과를 분석 기술하는 것이어야 한다.

7. 한국번역사와 한자(漢字)

한국 번역사 연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슈는 한반도의 역사적인 언어상황이다. 한반도는 인종적(人種的)으로나 언어적(言語的)으로 일찍부터 통일이 이루어져 단일민족(單一民族)에 한국어(The Korean Language)라는 단일언어의 전통을 유지해온 지역이다. 그러나 구어체(口語體) 한국어를 표기(表記)할 문자(文字)가 없어서 한자(漢字)를 빌려쓰게 된다. 이점에서는 이웃 일본 월남 등의 나라와 사정이 같다. 우리가 한글을 창제(創製)한 것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訓民正音) 해례(解例)에서 밝혔듯이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 백성이 쉽게 익혀 쓸 문자’의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말과 글이 달라서 겪는 고통에 대응(對應)하는 방법은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각각 달랐다. 일본이 한문을 간결하게 만들어 그 간결체의 음을 가지고 일본어를 표기하는 ‘가나’라는 문자를 만든 반면 한국은 ‘한자차자법(漢字借字法)’을 개발하여 문헌상 확인 된 것으로 볼 때 이미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후삼국, 그리고 고려시대를 거쳐서 사용되었으며 매우 독특하고 창의적인 한글이 창제되어 보급되면서 그 오래된 이문(吏文)의 사용이 점차 살아진다. 월남의 경우 상당히 오래 동안 한자를 쓰다가 아예 알파벳을 채택하는 길로 나가고 중국은 구어체 중국어를 한자로 표기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다가 백화(白話)문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한자사용의 어려움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한자(漢字)는 한국의 어문연구의 중심과제일뿐더러 한국의 번역과 번역사를

논의하는데 있어서도 핵심적(核心的)인 문제이다. 한글 전용의 시대인 21세기의 상황도 한자와의 문제는 해결된 문제이거나 쉽사리 간과(看過)해 버릴 문제는 아니다. 한국 번역사의 입장에서 한자가 우리 어문사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한국 번역사 논의(論議)의 근간(根幹)이나 다름없다. 한자는 1894년 고종(高宗)이 칙령(勅令)으로 “모든 공문서(公文書)는 국문(國文)을 본(本)으로 한다”고 한글을 공인하기까지 수 천년의 전통을 지닌 엄연한 우리 나라의 주(主) 문자였고 1948년 정부가 법률 제6호로 “공용문서는 한글만으로 적도록 하고 다만 필요한 경우 당분간 한자를 병용(併用)할 수 있다.”는 한글 전용(專用)정책(政策)을 채택했을 때도 한자는 국한(國漢)혼용(混用)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으나 1960년대 박정희 정권시기에 이 정책은 훨씬 강화된 모습으로 추진(推進)되어 모든 교과서(教科書)와 공문서(公文書) 그리고 거리의 간판(看板)에서 한자가 마침내 살아지게 된다. 따라서 한자에 대한 오늘날 우리의 태도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실제 번역에 있어서의 한자사용의 필요성(必要性)과 그 역사성(歷史性) 그리고 한글 전용 정책의 명분(名分)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한자와 관련된 한국 번역의 현실이다. 한글 전용(專用)정책(政策)은 번역의 입장에서 보면 한자의 조어력(造語力)을 빌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를 해결(解決)하는 길을 모색(摸索)하기도 전에 수 없이 많이 밀어닥치는 외래어(外來語)의 홍수(洪水) 앞에서 한글 번역은 한계상황(限界狀況)을 들어내고 있는 것이 또한 한국 번역의 현실이다’(Ryu 1997).

8. 한자가 사용된 3가지 방향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한문 서적과 기록을 보면 한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우선 한국의 번역과 관련해서 한자가 수행한 기능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1) 중국식의 한문(漢文)의 독해(讀解)와 작문(作文) 2) 한자(漢字)를 이용한 한한(韓漢)번역 3) 한자를 이용한 차자법(借字法) 개발(開發)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한자를 활용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어문사에서 한자의 역할을 분석해보는 일은 곧 한국번역의 역사를 밝히는 일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첫째 한문(漢文)서적을 충실한 독해(讀解)하고 한문으로 작문(作文)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다. 중국의 사대부들이 하는 방식대로 한문을 공부하고 시험치고 글을 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한문학의 태동이며 향교나 서원에서 진행된 사대부들의 교육은 대부분 이 한문 교육이었다. 여기에 사용된 교재는 주로 유교(儒敎)의 경전(經典)을 채택하였으며 한국의 유교는 한문교육과 더불어 우리문화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문공부는 중국어(Chinese Language)를 말하는 공부라 아니고 초보의 천자문(千字文)에서 시작하여 동몽선습(童蒙先習) 소학(小學) 통감(通鑑), 대학(大學) 등으로 발전해 나가서 마침내는 유교의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막힘 없이 읽고 쓰는 독해력과 문장력을 기르는 공부였다. 중국어를 공부하는 한학(漢學)과 한문을 읽고 쓰는 한문학(漢文學)은 다른 것이다. 비록 한문에 능하다 해도 중국인들과 말은 통하지 않아서 중국에 가는 사신들의 행차에는 중국어 통역 다시 말해서 한학강이관(漢學講肄官)이 동행했다. 당시의 한문학자들은 중국인들과 말은 통하지 않았으나 읽기와 쓰기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필담(筆談)대화(對話)가 널리 애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조와 조선조의 사대부(士大夫) 계층에 속하는 젊은이들은 한문교육을 받고 과거(科擧)라는 국가고시를 통과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으나 마침내는 중국의 사대부 계층과 비견해서 손색이 없는 문장을 쓰고 경서(經書)를 읽는 능력(能力)을 기르는 것이 그들의 또 다른 목표였다.

우리는 이러한 한문을 한국 한문학(韓文學)이라고 칭한다. 한국 한문학은 시가(詩歌), 악부(樂府), 소설(小說), 사부(辭賦) 등의 장르에서 많은 문인(文人)과 작품(作品)을 생산했다. 그러나 ‘한국 한문학이 중국의 한문학과 꼭 같은 것은 아니었다’고 이가원(1997)은 지적한다. 그는 이어서 ‘정음(正音)문자(文字)가 창조되기 전 신라시대의 이두(吏讀) 향가(鄉歌) 등 한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육서(六書)의 구성법(構成法)을 따르지 아니했고 고려와 조선의 과시문(科試文)이나 고려(高麗)의 한림별곡(翰林別曲)체의 가(歌)와 이조의 공용(公用)서식(書式) 등은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체제와 형태를 지닌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한문학을 도입하여 독자적인 한국 한문학으로 발전시켰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시나 작문은 번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듯하다. 왜냐하면 한문으로 직접 시(詩)나 사(辭)를 짓고 과거(科擧)를 보았기 때문에 한국어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문으로 작문을 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한자를 한국어의 번역에 이용한 것이다. 구전(口傳)해오던 한국어 시가(詩歌)와 전설(傳說) 등을 한문으로 번역하였으며 구어체의 야담(野談)이나 민담(民譚)을 한자로 번역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 번역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들 자료는 귀중한 두 권의 사서(史書)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김부식의 「삼국사기(三國史記)」(1145)와 승(僧) 일연(1206-1289)이 남긴 「삼국유사(三國遺事)」이다. 한국의 고대사와 삼국시대의 역사(歷史)와 인물(人物)과 문물(文物) 전설(傳說) 설화(說話) 시가(詩歌) 등이 전해지는 것은 이 두 사서(史書)의 공헌이다. 그런데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삼국사기에서 열전(列傳)잡지(雜志) 등은 구어체의 이야기를 한문으로 번역해서 수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대부분 한문교육을 받지 않았던 백성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국유사에 수록된 처용가(處容歌)나 월명사(月明師)의 도솔가(兜率歌) 등의 가사와 여러 전설(傳說)과 야담(野談)은 처음부터 한문으로 작시되었는지 아니면 구전되어 오던 것을 한문으로 옮겼는지는 확인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내용이 서민적이고 표현이 백성들의 생활을 주제로 한 것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구어로 전해오다가 나중에 한문으로 번역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한국 최초의 한한(韓漢)번역(Translations of spoken Korean into Chinese Characters)을 수록하고 있는 번역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셋째는 한자를 한국어 구어(口語)를 표기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훈민정음이 반포(頒布)되기까지의 한국어의 표기는 전적으로 ‘한자차자표기법’이라고 알려진 이 시스템에 의존하여 왔는데 고유명사(固有名詞)나 일부 특수어(特殊語)를 표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구어를 표기하는 전면적(全面的)인 체제라고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존재는 비문과 금석문 등의 고고학적인 자료를 해독해서 확인 한 것으로서 고대 및 중세 국어 연구의 핵심과제이다. 한자차자표기법은 이두(吏讀), 향찰(鄉札), 구결(口訣) 등으로 그 사용의 특색에 따라 분류되고 있는데 이두의 경우는 토지문서와 노비문서 등을 작성하는 데에 19세기까지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한자 차자법 자체의 문제보다 이러한 특수한 표기법이 번역이나 아니나의 문제에 대한 논의이며 이 논의가 선행되어 어떤 합의에 이르러야 이를 한국번역사에 기술할 수 있다. 따라서 차자

표기법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례를 고찰하여 번역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지 논의해보기로 한다.

한자 차자법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국어학사연구 특히 고대국어의 연구에서 이송녕(1953)의 “吏讀의 ‘殷·矣’考” 「역사학보」 이병도(1957)의 “壬辛誓記石에 대하여” 「서울대논문집」 그리고 이탁(1957)의 “吏讀의 根本的 解釋” 「李熙昇頌壽」 등등 많은 국어 학자들이 이 분야의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⁴⁾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몇 가지 결론은 한자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한자는 국어와 음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말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반포하는 ‘훈민정음(訓民正音) 해례(解例)’에서도 밝혔듯이 이 다른 음운 체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나온 것이 한자 차자법이다. 앞서 한자의 사용방안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한자를 중국체계대로 흡수 소화하여 한문학을 일으키고 다음으로는 한한번역(Korean into Chinese Translation)으로 우리 국어를 기록하는 역할을 했는데 마침내는 문자체계의 본래 가치대로 쓰지 않고 한국식으로 또는 한국어를 표기하는데 편리하게 용도(用道) 변경(變更)을 해서 중국인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한자를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한자를 좀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British English’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American English’를 사용하듯이 ‘The Chinese Character’에 대응해서 ‘The Korean Chinese Character’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일본의 한자 사용법까지 고려해서 이름을 붙인다면 ‘The Oriental Chinese Character’라고 호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차자법도 몇 단계로 나누어 발전된 것 같다. 다음은 김형주(1995) 「국어학사」에 근거하여 개요를 설명하고 이러한 표기법이 번역사에서 어떤 자리 매

4) 서병국, 홍순탁, 양주동, 강성일, 강길운, 강신항, 강현규, 김동소, 김민수, 김방한, 김승곤, 김완진, 김종학, 김종운, 김형규, 남광우, 남봉현, 박동규, 박영섭, 배대은, 송기중, 심재기, 허웅, 이기문, 이현규, 최범훈, 유창균, 안병희 등이 이미 50년대부터 이 부분의 연구를 시작하여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끊임 없이 이 특수한 고대한국어 표기법을 분석하고 정리해 오고 있다. 여기에는 외국의 학자들도 가세하여 山本謙吾(1969) 「滿洲語口語基礎語彙集」, 東京外國語大學 아세아 언어문화연구소 Ramstedt, G. J.(1982), *Paralipomena of Korean Etymologies*, suomalais-Ugrilainen Seura. 등 일본, 독일, 러시아 등의 학자들이 동아시아의 고대 언어의 교류와 생성 발전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김을 해야 할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고유명사(固有名詞)의 표기 : 지명(地名) 관명(官名) 인명(人名)의 표기에 한자가 지닌 음(音)과 의(義)의 기능을 이용하여 고유어가 가진 음성적 특징을 살리고자 했다. 음훈차표기법(音訓借表記法)이라고도 하는 이 방식은 고유어의 표기로부터 시작하여 그 사용의 범위를 점차 넓혀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유명사 표기는 단순한 작명이지만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문연구에서 언어의 이동을 확인하고자 할 때 중요한 구실을 한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실려 있는 82개의 지명을 통하여 그 표기방법을 살펴보면 1) 차음(借音)에 의한 표기 2) 차훈(借訓)에 의한 표기 3) 차의(借義)에 의한 표기 4) 한역(漢譯)에 의한 표기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이 음훈차(音訓借) 표기이다.

2) 서기체표기법(誓記體表記法)

한자의 뜻을 그대로 사용하되 구문의 어순을 우리말의 어순에 맞도록 배열하는 방식이다. 한자는 한문식 어순(語順)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문자만 빌렸을 뿐 한자의 음과 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표의문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경주의 석장사(石杖寺)란 절터에 남아있는 돌의 표면에 새겨져 있는 서기체표기로 된 글은 다음과 같다(번역: 김형주 1991).

壬新年六月十六日 二人并誓記 天前誓 今自三年以後 忠道執持過失无
誓 若此事失 天大罪得誓
若國不安大亂世 可容行誓之 又別先辛未年 七月二十二日大誓 詩尙書
禮傳倫得誓三年

임신년 유월 십육일에 두 사람은 함께 맹세하여 기록한다. 하느님 앞에 맹세한다. 지금으로부터 삼 년 이후에 충성과 도리를 지키고 과실이 없기를 맹세한다. 만일 이일을 어기면 하느님께 큰 죄를 얻을 것을 맹세한다. 만일 나라가 편안치 않고 크게 세상이 어지러우면 가히 모름지기 충과 도를 행할 것을 맹세한다. 또 따로 앞서 신미 년 칠월 이십 이일에 크게 맹세를 하였다. 시경, 상서, 예기, 춘추좌씨전을 차례로 습득하기로 맹세한지 삼년 이라.

이 글은 한문이 미숙한 사람이 쓴 것 같으나 실은 신라시대의 식자(識者)들이 한자를 빌려서 한국어의 어순에 따라 쓴 번역으로서 내리글(誓記體)의 전형적인 표기법을 보여주고 있다고 김형주는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번역으로 보는 이유는 원문이 비록 구어라 할지라도 우리 한국어이고 번역문은 한문의 문법을 따라 쓰지는 않았더라도 엄연히 한자로 표기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誓記體는 우리의 고유어나 시 노래 등은 옮길 수 없어서 향찰이라는 또 다른 표기법을 개발한 것으로 본다.

3) 향찰(鄉札): 향찰은 균여전(1075) 譯歌功德分の 崔行貴의 序文(966)에 처음 나타난다. 향찰은 신라어로 적은 문장이란 뜻으로 한자의 음(音)이나 새김(訓)을 빌어서 우리말을 번역하기 위해 만들었다. 원칙적으로 의미소(意味素)는 새김으로, 문법소(文法素)는 음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한자의 음(音)과 훈(訓)을 최대한 이용하여 완전한 우리말을 그대로 표기하려는 방식으로 신라의 식자들은 우리말을 소리그대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이 향찰을 이용하였다. 향가는 향찰로 적은 노래를 의미하는데 삼국유사에 14수, 균여전에 11수가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다음은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 서동요를 분석해 본다.

善花公主主隱 他密只嫁良置古 薯童房乙 夜矣卯乙抱遣 古法如
 선화공주님은 남몰기얼어두고 맛동방을 밤의몰안고간다.⁵⁾

한 문장이 의미소(意味素)와 문법소(文法素)로 구성된다고 분석해 볼 때 향찰에서의 의미소는 한문의 낱말을 그대로 빌려쓰고 문법소는 한자의 음을 빌려 썼다. 문법소에는 한정된 글자를 채택한 것으로 미루어 생각해 보면 향찰은 상당히 체계적인 어문체제임에 틀림없다.

5) 여기서 主자는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다. 한자 主자는 ‘님주’라고 읽는데 님은 훈이고 주는 음이다. 따라서 “善花公主主隱=음음음음훈음 他密只嫁良置古=훈훈음훈음 훈음 薯童房乙=훈음음음 夜矣卯乙抱遣 古法如=훈음음음훈음(음)훈훈”으로 읽게 된다. 이는 한자가 지닌 음과 훈을 편리한대로(?) 동원하여 우리말을 최대한 정확하게 표현하자는 의도가 보인다. 이와 같이 우리말의 음가(音價)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한 이러한 이두(吏讀)체제는 신라 시대에 만들어지고 그 후 훈민정음이 반포되고 난 후에는 물론이고 19세기까지도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쓰기가 그리 쉽지 않거니와 이를 공부한 사람을 이문(吏文)에 밝은 사람 즉 이학자(吏學者)라고 했다.

‘隱=주격조사 乙=목적격조사 矣=위치격조사 良=부사 古=제1부사형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신라인들은 이미 글을 씌에 있어서 문법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고 우리말을 분석하여 문법소(文法素)와 의미소(意味素)를 각각 다르게 처리한 것이다. 향찰은 구전 가요를 기록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되어 향가를 번역함으로써 삼국유사에 수록되고 오늘까지 전해졌다. 이는 번역의 관점에서 구어체 향가(ST)를 한자향가(TT)로 옮겨 기록에 남겼으니 어김없는 번역일 뿐만 아니라 한자를 창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번역을 둘러싸고 당시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을 것이 틀림없고 이러한 논의가 지금 전해진다면 한국의 번역학이나 한국문법학의 효시가 아닐까 생각된다.

4) 이두(吏讀): 이두라는 말은 여러 가지 비슷한 이두에 대한 명칭 가운데 대표적인 명칭이다. 이러한 명칭을 분석해 보면 이두를 만들어 사용한 의도와 기본 개념이 파악된다’(김형주 1995). 「大明律直解」(1395)의 발문(跋文)에는 이도(吏道)로 「世宗實錄」(세종 28년) 서(序)에는 이두(吏讀)로 처음 등장하고 있다.

我本朝三韓時 薛聰所製方言文字謂之吏道(대명률직해)
昔新羅薛聰始作吏讀(세종실록)⁶⁾

그 외에 이두에 대한 명칭으로 「儒胥必知」에는 이토(吏吐) 또는 이두(使頭) 「宣祖實錄」에는 이도(吏刀) 등으로 기록되어 있고 문장으로 인식한 사례로는 이찰(吏札)(東國輿地勝覽) 이서(吏書)(帝王韻紀) 이문(吏文)(典律通補) 등의 이칭(異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명칭이 있는 것은 ‘한자의 음(音) 훈(訓) 석(釋)을 이용하여 우리말을 전사(Transcription)한 일부 실사(實辭)(Meaning word)와 허사(虛辭)(Function word)인 조사나 어미 등에 해당되는 표기를 이두라 하고 외국체(擬國體)에 이두가 첨가된 문장을 이두문이라 하는

6) 이 두 기록에는 설총이 이두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비록 설총이 뛰어난 학자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두라는 어문체계를 혼자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록으로 보면 설총 이전에 이미 이두가 있었기 때문에 설총은 이두를 집대성한 학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것이 바른 개념정립'(김형주 1995)이라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중국 명나라의 법률인 대명률(大明律)을 우리말로 번역한 「大明律直解」에 쓰인 이두문에서 번역문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볼 수 있다.

* 이두번역: 凡 奴子亦 良人矣 婦女乙 犯奸爲在乙良 凡 奸罪良中 加等
齊 良人 亦他矣奴子乙 行奸爲在乙良 減一等齊 奴婢亦 相
奸爲在乙良 범 奸例以論爲乎事

* 한글번역: 무릇 종이 여염집의 부녀를 강간하였거든 모든 강간죄보다 한
등 무겁게 하라. 여염집 사람이 남의 종을 간통하였거든 한
등 가볍게 하라. 노예가 저회끼리 간통하였거든 일반 강간 예
로 판결할 일

위 글에서 ‘奴子’, ‘良人’, ‘婦女’, ‘婢子’ 등의 의미부에 해당되는 주어는 모두 중국에서 들어온 외래어가 쓰이고 용언(用言)의 어간(語幹) 역시 범간(犯奸) 행간(行奸) 등은 중국말을 가져다 썼으니 이두란 의미부(意味部)는 한문식(漢文式) 그대로하고 형식부(形式部)를 한자의 음과 훈을 가지고 우리말을 기록하는 표기방식이다 이는 향찰(鄉札)과는 구별되는 표기법이다. 이두표기는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의 금석문(金石文)에 많이 남아있고 조선시대에는 서적, 문집, 각종기록물 등에서 찾을 수 있다.⁷⁾

5) 구결(口訣) : 한문문장을 읽을 때 보다 정확히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구결이란 토를 붙여서 읽었다. 국어의 구조와 전혀 다른 한문을 읽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끊어 읽을 곳에 토를 달아서 문맥을 통하게 만들었다. 이는 한번역이 성행함에 따라 구결도 발달하게 된 것이다.

- (1) 한자구결 : 隱(은) 爲也(하야) 厓(에)에 於乙(어늘)
- (2) 한자의 약자: ㄱ(은) ㄱ(에)에

7) 이두자료 1) 통일신라시대 上院寺鐘記(평창군, 선덕 24), 갈항사석탑기(김천군, 원성왕), 연지사종기(진주, 흥덕 8), 조선중기(일본, 경덕 4) 2) 고려시대: 경천선원자숙선사능운담비(영주, 태조 4), 통도사국장생석표(양산, 의종 2), 무안리국장생석표(밀양, 의종 2) 3) 조선시대: 1) 대명률직해(태조 4), 2)경상도지리지(세종 6), 광해일기(인조 2), 농포집(영조24, 정문부).

(3) 국문: 은, 흐야, 애세, 어늘, 이나라

예문: 天地之間萬物之中(矣)唯人(伊)最貴(爲尼)所貴乎人者(隱)以其有五倫(也羅)

위 글에서 ()친 부분이 한자구결이다. 구결에서 약자의 출현은 일본의 가나와 비슷한 것으로서 간편하게 쓸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훈민정음 창제 후에는 국문으로 토를 달았으나 상당히 오래 동안 한자 구결도 사용되었다. 이는 한문(ST)을 정확히 읽어야 번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자체계가 다른 한자의 번역에서 필수적인 원문독해(Source text analysis)의 선행 절차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한자를 이용한 차자법의 용례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번역과 관련 지어 생각 할 수 있는 것은 향찰은 향가의 번역에 공헌하였고 이두는 『대명률직해』와 같은 법률 서적을 번역하여 조선조의 국기를 다지는데 공헌했다는 점이다. 신라 고려의 어문학자들은 당시로서는 아주 발달한 어문체제인 한자를 도입하여 교육하고 연구하면서도 우리말과 어순과 체계가 다른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쓴 흔적이 이러한 차자법으로 나타나 있다. 한자 차자법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말의 특성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차자법을 만들어 쓰는 과정에서 어떤 민족어에 대한 자각이 싹틔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것이 후일 훈민정음의 창제라는 역사적인 일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자법은 문화사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텍스트를 번역한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다. 왜냐하면 불경이나 중국의 문학이 이 차자법으로 번역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자법은 오늘날 한글의 로마자표기법(Romanization)처럼 일종의 특수하게 고안된 전사법(Transliteration)이며 음역법(Transliteration)의 범주에서 파악해야 할 것 같다. 어떤 학자들은 전사법과 음역법을 번역의 범주에서 논의하지 않고자 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 이유는 번역의 과정과 전사법이나 음역의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번역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이 번역문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음역과 전사는 이미 어떤 규칙이나 틀을 가지고 거기에 대응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전사법은 번역의 다른 하나의 자유재량번역(Free translation)에 대응해서 원문의 의미보다는 음가(音價)와 형식(形式)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Nord 1991a:30) 그러나 향

가의 번역은 단순한 전사법이나 음역으로만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국어의 많은 의미소를 한자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번역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원문의 내용을 살려내는 기술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9.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창제와 언해(諺解)

훈민정음의 반포(1446)는 한국의 번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일이다. 말을 표기하는 문자가 없어서 한자를 차자법으로 만들어 사용했는데 이를 전면적으로 대신할 어문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훈민정음창제 이후로는 이두나 향찰의 번역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한문의 번역은 언문(諺文)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여기서 말하는 언해는 1) 번역대상을 한문(漢文)과 백화문(白話文)으로 하는 것이었다. 한자가 때로는 혼용되기도 하지만 「양잠경촬요」나 「대명률직해」와 같은 번역은 이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해가 아니며 사역원의 청학(淸學)이나 왜학(倭學)을 학습하는 교과서를 한글로 번역한 것도 언해가 아니다. 중국의 백화문으로 쓰여진 한학학습서나 「노걸대 언해」는 언해 번역에 속한다. 언해의 특징은 한글로 된 번역과 함께 원문인 한문이 문단으로 나누어 대조(對照)시켜 놓는다. 조선조의 대표적인 언해는 「금강경언해」, 「능엄경언해」, 「법화경언해」, 「석보상절」, 「원각경언해」, 「육조법보단경」 등 10여권의 불경언해이다. 다음으로는 유교의 가르침을 보급 전파하는 내용의 민중계도용 교재로 사용된 「소학언해」를 필두로 「삼강행실언해」 「내훈」 「가례언해」 등이 있다. 그리고는 「언해 두창집요」 「언해태산집요」 「마경초집언해」 등의 의서 농서등 실용적이고 산업에 관련된 언해이다. 역학서에 관한 언해로서 「첩해신어」 「노걸대언해」 「두시언해」 「훈민정음해례」 「훈몽자회」 「동국정운」 「번역박통사」 등이 있다. 언해가 이루어진 장르를 살펴보면 조선조 시대의 민간이나 관청에서 어디에 관심을 기울였는가를 짐작케 한다. 불경의 언해와 유교규범집의 언해 등은 왕가의 권위를 높이고 민간의 도덕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방책으로 볼 수 있으며 산업과 관련된 의서(醫書) 농서(農書)와 각종 민간 치료법(治療法) 등이 번역된 것은 새로운 중국의 문화를 입수하여 민생을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불경의 언해가 꾸준히 이루어진 것은 불경 자체가 풍부한 지적 콘텐츠를 담고 있거나 조선조에서 비록 불교가 배불숭유(排佛崇儒)정책으로 밀려나 있었으나 민간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두에서의 번역이나 언문 번역은 원문의 뜻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선비들이 이 작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오역의 문제나 번역 방법론상의 문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고 본다. 또한 번역가가 원문을 실릴지 번역문을 실릴지에 등에 관한 문제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러한 번역에 종사한 사람들은 대부분 한문학자들이었으며 그들은 원문을 이미 충분히 공부한 사대부들이었기 때문에 번역할 때 별다른 고충을 느낀 것 같지는 않다. 이 언해를 통해서 조선은 중국으로부터 많은 문화적 콘텐츠를 수입하고 이를 민간차원으로 보급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언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기술은 한국번역사의 기술에 있어서 핵심적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 외국어 교육과 통역제도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쇄국 정책을 주로 채택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나 실상 신라와 고려조에 이미 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었고 통역을 담당하는 조정의 기구가 있었다는 점은 번역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관심을 끄는 일이다. 이러한 제도를 만든 것은 우리가 동북아에서 빈번한 문화의 교류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일이고 한국이 외교의 중심지의 구실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혼란 속에 몇 십 년 지속된 후삼국시대 태봉국의 궁예도 사대(史臺)라는 기구를 두어 언어학습을 시키고 통역을 담당케 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군50 열전 제10궁예조)에 기록되어 있는 점은 매우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元祐元年甲子 立國號摩震 年號爲武泰 ...又置史臺 掌習諸譯語

원우원년(964)갑자에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무태라 하였으며 또 사대를 설치하여 여러 번역어를 담당케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조정에 외국어 교육과 통역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통문관(通文館)이 충렬왕2년(1276)에 설치되어 특히 한어(漢語) 교육을 전담하였다. 정확한 연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아마 이 즈음에 번역학(翻譯學)에서 번(翻)자만 빠졌을 뿐 엄연한 역학(譯學)이 있었고 역관(譯官)이 있었다. 강신항 교수의 「한국의 역학」(서울대출판부, 2000), 정광 교수의 「사역원 왜학연구」(태학사, 1988) 등에서 연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렬왕2년에 통문관을 처음으로 설치하고 금내학관 등 참차관(문무 7품 이하)으로서 나이 40미만인자에게 한어(漢語)를 배우게 하였다. 금내학관은 궁중 안의 학관으로서 비서성, 사관, 한림원, 보문각, 어서각, 동문원 근무자를 말하며, 아울러 식목도감, 도병마사, 영송 담당자를 금내관이라고 했다(고려사 권 76 지 권 30 백관조 46-47).

조선시대에는 1392(태조 1)에 역과가 정해지고 다음해 1393에 사역원이 설치되었다. 세종 때 사역원에서는 한학, 몽학, 여진학, 왜학 등을 교육하고 실지 통역에 임하는 훈련을 시작하였다. 역관의 지위는 초기에는 다소 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후기에 가면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지고 양가의 지식들이 서로 입학하려 했다. 역관들이 역어를 연구하여 발간한 역서가 중기 국어를 연구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직해소학」(태조, 설장수) 「직해동자습역훈평화」(성삼문, 1449) 등의 교재가 있고 한어역관에 원민생, 이지영, 김시우 등의 활동이 두드러졌으며 최세진과 신숙주 같은 유학자도 역관으로 활동하였다. 역관들이 번역한 「박통사연해」 등은 그들이 외국어를 번역하여 교재를 만들었다는 하나의 실적으로 평가된다. 「역어유해」(1696) 1761년에는 「노걸대신석」을 변헌 등이 지었고 1779년에는 이수가 「한청문감」 15권을 편찬하였는데 중국어 만주어 한국어의 대역사전이다. 왜학관련 서적으로 「첩해신어」(1790)는 1796년 「첩해신어문석」으로 12권 4책으로 줄었다. 조선의 역학은 사역원을 중심으로 교육되고 실지 현지에서 외국인들의 구난(救難)이나 출입국에 관여했다. 그리고 역관(譯官) 또는 설인(舌人) 통사(通事) 등으로 불려진 통역사는 평소에 전담 외국어를 공부하고 시험을 치러 합격해야 소임을 맡을 수 있었다. 부산포나 제주포와 같은 항구에 지방 분소 같은 것이 설치되어 현지의 통역을 전담하는 기능을 했다. 이들이 공부한 한학이나 왜학은 사대부들의 유학 공부와는 달리 대부분 언어공부였

다. 통역전담의 조직을 설치하여 통역사를 상비군처럼 훈련시키고 상시 근무하게 했다는 것은 과거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우리의 번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11. 한국번역사의 시대구분(時代區分)

한국의 어문학은 한자와의 관련에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앞의 여러 한자활용 역사에서 분명해졌고 이를 다시 시대별 특징을 중심으로 구별한다면 크게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시대구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선행연구가 없는 현실점에서는 이 3단계 구분법이 시대구분의 명분을 가장 잘 살려 주기 때문이다. 한자의 사용은 15세기 훈민정음의 창제로 인해서 일단 그 명분과 현실 양면에서 도전을 받게 된다. 최만리의 상소문이 비록 한자사용을 옹호하는 마지막 소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훈민정음의 인기는 줄어들지 않았을 것이다. 훈민정음의 창제는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르네상스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번역사의 시대구분도 훈민정음 반포 이전을 1. 한자차자표기(漢字借字表記)번역의 시대(대체로 삼국시대, 신라시대, 후삼국시대, 고려시대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두(吏讀) 향찰(鄕札) 구결(口訣)로 대별되는 한자차자법을 고안하여 1) 토(吐)를 달아 한문을 정확히 읽는 문제 2) 우리말을 한자표기법으로 번역하여 나타내는 문제 3) 우리말의 어순에 맞추어 한자를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러한 표기법은 금석문과 비문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등에 자료를 남기고 있다.) 2. 언문(諺文)번역의 시대(주로 언해의 시대로 이두는 이 언해의 시대에도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번역의 주언어는 언문이었고 주로 중국의 경전이나 실용서를 번역하여 조선왕조의 체제유지와 민생안정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역서를 편찬한 것은 상당히 특이한 것이다. 3. 한글번역의 시대(이는 대체로 20세기에 들어와서의 번역이며 번역의 대상은 더 이상 중국이 아니고 영국, 불란서, 미국, 독일 등 서구제국의 문물이었다.

여기서 한글 번역과 언문번역은 같은 것이 아닌가 할 것이다. 한글이 공식 문자로 조정에서 채택한 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이전을 언해의 시대로 그 이후를 한글 번역의 시대라고 구분하는 것이다. 언문시대와 한글시대는 여러

관점에서 다른 것이 있다. 1894년 고종은 칙령으로 한글의 공식 국문화 시책을 발표한다. 이 정책은 일제의 강점으로 빛을 잃었으나 번역에서 언문이라는 말은 점차 사라지고 현대의 한글이 주 번역어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한글 번역은 언문 번역과는 달리 중국의 고전번역에서 서구의 문학과 과학을 번역의 대상으로 하며 한자와의 관계에서 점차 고유의 독립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시작한다.

12. 맺는 말

이상에서 검토한 바를 정리해보는다면 번역사는 번역이론의 개발과 함께 번역교육의 열개를 만드는 작업으로서 이미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번역사를 기술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 번역사의 연구는 국어 발달사 등에서 이미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다. 한국의 번역사는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번역학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번역사의 기술은 일반역사기술과 마찬가지로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사관(史觀)의 문제와 물려있는 만큼 번역의 정체성 논의와 더불어 독립된 학문영역으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분야이기도하다. 번역사의 기술은 현재 지역번역사, 시대별 번역사, 장르별 번역사 등으로 나누어 기술되고 있으며 종합적이 시각에서 번역사를 기술할 필요가 있다. 번역고증학이나 역사비평 그리고 해설 등의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하여 번역사의 연구는 다각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역사적인 통역제도와 외국어 교육제도는 한국번역사의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라 할 수 있으며 한국의 번역사는 한자와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 온 것이 특징이며 이는 한자의 영향을 얼마나 받고 또 벗어나는가 라는 함수관계에 있는 것 같다. 한국이 한자를 사용한 방법은 독특한 것으로 1) 한국한문학(韓國漢文學) 2) 한한번역(韓漢翻譯) 3) 한자차자법(漢字借字法) 등 다양한 사용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고대와 중세 한국어 연구의 중심과제의 하나이다. 결론적으로 한국번역사는 3시기로 시대구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1) [한자차자법시대](신라시대부터 훈민정음반포(1446)까지 한자의 음 또는 훈을 빌려 한국어를 표기했던 시기를 말한다.) 이두, 향찰, 구결 등의 방법이 고안되어 사용되었다.

2) [언해(諺解)의 시대](1446년 훈민정음의 반포로부터 1894년 갑오경장까지 언문으로 한문경전과 불경 등을 번역했던 시기를 말한다. 3) [한글번역의 시대] (갑오경장으로부터 현대까지 한글로 중국의 고전 대신 서구의 현대 문학과 과학의 번역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1)과 2)의 구분시점은 한글창제를 경계선(境界線)으로 하고 2)와 3)의 구분은 19세기말 갑오경장(甲午更張)을 기점으로 하는 것은 번역에 사용된 문자가 달라지며 번역의 대상과 방법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신항. 「사성통해연구」. 신아사, 1973.
 _____. 「이조시대의 역학정책과 역학자」. 탐출판사, 1978.
 _____. 「한국의 역학」. 서울대 출판부, 2000.
 김병철. 「한국현대번역문학사」. 을유문화사, 1998.
 남광우. 「동국정운식 한자음연구」. 한국연구원, 1966.
 남풍현. 「차자표기법연구」. 단대출판부, 1986.
 서종학. 「이두의 역사적 연구」. 영남대 출판부, 1995.
 안병희. 「중세국어 구결의 연구」. 일지사, 1977.
 이가원. 「한국한문학사」. 보성문화사, 1997.
 이기문. 「국어표기법의 역사적연구」. 한국연구원, 1963a.
 이승녕. 「신라시대의 표기법체계에 관한 시론」. 서울대논문집, 1955.
 정 광. 「사역원 왜학연구」. 태학사, 1988.
 한상인. 「조선초기이두의 국어학적 연구」. 보고서, 1998.
 小倉進平. 「增訂朝鮮語學史」. 刀江書院. 東京, 1940.
 마루야마 마사오. 「번역과 일본의 근대」. (번역: 임성모). 이산, 1998.
 쓰지 유키. 「번역사 산책」. (번역: 이회재). 궁리, 1995.

- Arencibia, L. 'Apuntes para una historiade la traduccion en Cuba'. *Livius* 3:1-30, 1992.
- Baker, M. (ed.)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1998.
- Bassnett, Susan. *Translation Studies*. London & NY: Routledge, 1980.
- Berman, Antoine. (1994) *L'Épreuve de l'étranger*. Paris: Editions Gallimard; trans. (1992) by S. Heyvaert as *The Experience of the Foreign: Culture and Translation in Romantic German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Bussman, Hadumod. *Routledge Dictionary of Language and Linguistics*.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6.
- Delisle, J & Woodsworth, J. *Translators through History*. Amsterdam: John Benjamins, 1995.
- D'hulst, Lieven. (1991) 'Pourquoi et comment écrire l'histoire des théories de la traduction?' in Mladen Jovanovic (ed.) *Translation, a Creative Profession*. Proceedings of 11th World Congress of FIT, Belgrade, 1990, Belgrade: Prevodilac, 57-62.
- Carr, E. H. *What is History?* New York: Vintage Books, 1961.
- Cary, E. *La traduction dans le monde moderne*. Geneva: Georg & Cie, 1956.
- Chan Sin-wai and David Pollard. (eds) *An Encyclopedia of Translation. Chinese/ English, English/Chinese*, Hong Kong: Chinese UP, 1994.
- Chavy, P. *Traducteurs d'autrefois. Moyen Age et Renaissance. Dictionnaire des Traducteurs et de la littérature traduite en ancien et moyen français (842-1600)*. 2 vols. Paris: Cahmpoin-Slatkine, 1988.
- Collingwood, R. G. *The Idea of History*. Oxford: Clarendon Press, 1962.
- Copeland, Rita. *Rhetoric, Hermeneutics, and Translation in the Middle Ages: Academic Traditions and Vernacular Texts*. Cambridge: Cambridge UP, 1991.
- Cronin, Michael. *Translating Ireland*. Cork: Cork UP, 1996.
- Johnson, Samuel. *The Idler and Adventurer*, eds W. J. Bate, John M. Bullitt

- and L. F. Powell, New Haven and London: Yale UP, 1963.
- Kelly, Louis G. *25 Centuries of Language Teaching*, Rowley, MA: Newbury House, 1969.
- Lambert, Jose. 'How Emile Deschamps Translated Shakespeare's *Macbeth*, or Theatre System and Translation System in French', in A. Lefevere and K. D. Jackson (eds) *The Art and Science of Translation. Dispositio* 7(19-21): 53-62, 1982.
- Lefevere, A. *Translation/History/Culture*. London: Routledge, 1992.
- Nama, Charles A. 'A History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in Cameroon from Precolonial Times to Present'. *Meta* 35(2): 256-369, 1990.
- Nord, Christiane (1991a) *Text Analysis in Translation*, Amsterdam: Rodopi.
- Novick, P. '*That Noble Dream. The Objectivity Question*' and the American Historical Profession, Cambridge: Cambridge UP, 1988.
- Pym, A. *Method in Translation History*. Manchester: St. Jerome, 1998.
- Ryu, M. W. "The Adoption and Adaption of Chinese Characters in Korean Translation" in the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anslation*, 1997 Oct.31-Nov.3, Beijing Foreign Studies University, 1997.
- Savory, T. H. *The Art of Translation*. London: Cape, 1957.
- Simon, Sherry. *L'Inscription sociale de la traduction au Quebec*. Quebec: Office de la langue Francaise, 1989.
- Stanford, M. *The Nature of Historical Knowledge*. New York: Basil Blackwell, 1987.
- Snell-Hornby, M. *Translation Studies: an integrated approach*. Amsterdam: John Benjamins, 1995.
- Steiner, George. *After Babel: Aspects of Language and Translation*. London. Oxford and New York: Oxford UP, 1975/1992.
- White, H. *Metahistory: The Historical Imagination in Nineteenth-century Europe*.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73.

[Abstract]

A Study on History of Korean Translation

Ryu, Myoung-woo

(Professor of Honam University, President of Korean Association of Translation Studies)

This paper is to present some basic ideas of describing a *History of Korean Translation* in order to meet the need of systematic translation education. In advance of writing a history of Korean translation even if it is a brief one, it seems quite essential to study how to structure the past translations including categorization of time and space and objectives and procedures of translation. And it seems inevitable to borrow lots of information from Korean studies and Korean linguists because they have already studied historical linguistic situations of Korea. Therefore, this kind of paper is bound to reedit the pre-studied results of the Korean language history in view of translation and translation studies.

Korean old kingdoms, such as Shilla, Koryeo, and Yi dynasties, adopted Chinese characters as their official letters for more than 2,000 years and most Koreans had to adapt themselves to a bilingual system, spoken Korean and written Chinese characters. Hence, Korean oral literature and official documents were described in or translated into Chinese characters. In a sense, the first Korean translation was made 'from Korean oral literature into Chinese characters'.

Without its own writing system, Old Korean scholars had to take advantage of the phonetic system of the Chinese characters to describe the Korean language which is called 'Hanja-chaja-beob' (漢子借字法) including subdivided methods, Yidu (吏讀), Hyangchal (鄉札) and Gugyul (口訣). In order to overcome the inconveniences of the common people due to the lack of national

characters, King Sejong ordered the creation of a new writing system, 'Hun-min-jeong-um' or 'Hangul'. After the invention and proclamation of the use of Hangul, various kinds of translation including Confucian classics, Buddhism classics, some linguistic texts, medical treatments, and farming methods, have been made mostly from Chinese into Korean 'Eon-mun'. The contents and items of Eon-mun translation seemed to be decided chiefly to pay regard to the moral education and welfare of the common people including typical Chinese poems and tales.

Therefore, the history of Korean translation can be divided into three ages: 1) the age of 'Hanja-chaja-beob' translation :translation from Korean oral literature into Chinese characters: 2) the age of Eon-mun translation (1446-1894) : translation from Chinese characters into Korean Eon-mun' : 3) the age of Hangul translation (1894-2002): translation 'from Western languages into Korean Hangul'. From this point of view I am happy to suggest two outstanding figures who have contributed much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translation: one is Seol-chong who has been recorded to have invented the Yidu system during the Shilla dynasty and the other is King Sejong who took the leadership of inventing and proclaiming 'Hangul' in the beginning of the Yi dynasty, which can be described as Korean Renaissance.

A large, light gray watermark consisting of the letters 'K', 'C', and 'I' in a bold, sans-serif font, positioned horizontally across the lower half of the page.